

◎ 渡辺信一郎, 『中國古代の王權と天下秩序: 日中比較史の視點から』(東京: 校倉書房, 2003)

서설. '천하'와 왕조의 이름

천하대동(天下大同)=<예기> 예운(禮運) 편. 대도가 실행되어 천하에 공공성이 가득하고 오제 시대(※고대 중국의 전설적인 다섯 성인으로서 황제, 전욱, 제곡, 요, 순을 말한다. 기원전 3000년경에 황하 유역에 모여 살던 부족을 황제(黃帝), 즉 황하를 닮은 누른빛의 지도자가 다스렸고, 그 뒤 전욱과 제곡을 거쳐 요임금과 순임금 시대에 태평성대를 이룬다.)같은 현인이 돌아가며 천자가 되고, 사람들은 자신의 부모 자식 뿐만 아니라 남의 부모 자식도 친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 사회적 약자 모두가 근심하지 않고 생활하며, 재화는 사유하지 않으며, 힘이 있는 자는 그 힘을 자기만을 위해 써버리지 않고 세상과 남을 위해 이를 비축하고 사용한다. 나아가 이기적인 음모·도적이 없어서 문단속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말한다.

<예기> 예운(禮運) 편. 대동의 세상에 버금가는 사회로서 소강(小康) 세상에 대한 기술. 대도는 숨겨져 있고, 하은주 삼대처럼 왕조를 세워 천하를 세습하고, 자기 부모와 자식을 친애하고, 재화·노력은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성곽을 방어로 삼고, 예의를 국가의 기강으로 하여, 군신·부자·형제·부부간의 윤리를 만들어, 제도를 세우고, 용기·지력을 높여 자기 한몸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 또한 모략과 전쟁이 일어나는 사회이다.

수나라 문제는 '천하대동'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방제도 및 예악제도 등 일련의 개혁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대동이든 소강이든 그 기저에는 '천하'라는 관념이 깔려있다. 문제의 유언에는 천하를 구조화하는 말로서, 상천(上天), 명(天命), 천의(天意), 사해(四海), 구하(區夏: 中國), 생민(生民), 백성(百姓)이 등장한다.

이 책의 목적은, 문제가 실현하려 했던 '천하대동', 즉, 천하와 그것을 구조화하는 일련의 단어를 통해서, 중국고대 왕권의 특질을 살펴보는 것.